18,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幷世意識) *

정 민 **

1. 머리말
2. 병세의식의 저변과 우정론의 자장(磁場)
3. 병세의식의 전개 양상
  1) 내부의 표정 : 『병세재언록』과 2종 『병세집』
  2) 한중 문사의 천애지기론(天涯知己論)과 모소열풍(慕蘇熱風)
  3) 한일 문사의 시회아집(詩會雅集)과 지음지교(知音之交)
4.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18, 19세기 동아시아의 지식인 교류와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幷世意識) 고조(高潮) 양상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병세의식은 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연대(連帶) 의식이다. 전 시기 상우천고(尙友千古)를 말하던 공간 중심 사유가, 당대성과 동시대성을 중시한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시간 중심 사유로 변했다. 이는 신분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 동시대 지식인 집단 사이의 수평적 사유가 가능해 진 것을 의미한다.

최근 다카하시 히로미 교수는 『동아시아의 문예공화국』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연행사와 통신사를 통한 동아시아 지식인의 교류에 주목했다. 그는 18세기 유럽의 지식인들이 라틴어 저술을 매개로 하나의 문예공화국(Republic of Letter)을 형성해 나갔던 것처럼, 한문을 매개로 한 한중일 삼국 지식인의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예공화국 개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1] 본고는 그의 이같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A00110).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1) 高橋博巳, 『東アジアの文藝共和國 : 通信使·北學派·蒹葭堂』(일본 : 新典社新書 26, 2009.1). 조선통신사와 북학파의 인물들, 그리고 일본의 蒹葭堂, 즉 기무라 겐카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식인 사이에 싹

입론에 호응하여 병세의식이란 키워드를 통해 이 논의를 좀더 확대해보려고 한다.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은 동시대의 문인, 학자, 예술가의 전기를 엮어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을 펴냈다. 윤광심(尹光心, 1751-1817)은 당시 활동 중이던 동시대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시문을 모아 『병세집(幷世集)』을 묶었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 동시대 외국인의 시를 모아 『병세집』을 엮었다. 대부분 문집으로 간행되기 이전의 원고를 수합한 것이다. 『병세재언록』은 신분의 제약에서 자유로웠고, 윤광심의 『병세집』도 동시대성을 코드로 해서 신분과 국경의 제약을 넘었다. 유득공의 『병세집』은 국경의 경계를 훌쩍 넘었다. 근엄한 유학자와 시정의 재주꾼을 나란히 배치한다거나, 조선 문인의 글 사이에 중국인과 일본인의 시문을 함께 두는 수평적 사고의 확장은 전 시기까지만 해도 용인되기 어려웠다. 멀리 안남과 유구의 시인까지 포괄하는 동시대 선집을 기획한 것도 놀랍다. 의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홍대용(洪大容)은 한 차례의 연행에서 만난 중국 문사들과 평생에 걸쳐 서신을 왕래하며 교유를 지속했다. 그리고 그 자취를 『회우록(會友錄)』 또는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란 이름으로 남겼다. 이는 한중 문사의 사적 교유에 불을 당겼다. 다음 시기 연암 그룹의 일원이었던 박제가의 제자 추사 김정희가 소동파를 매개로 하여 한중 지식인의 교류를 더 밀착시켜 나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시기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조선 지식인들과 일본 문사와의 사적 교유도 흥미롭다. 이전과 달리 상대를 얕잡아 보는 근거 없는 우월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일본 지식인을 지식 교류의 장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큰 변화다.

이렇듯 이 시기 병세의식은 내부에서는 신분의 경계를 넘는 수평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외부로는 타자에 대한 변모된 인식과 대응을 보여준다. 병세의식의 성장은 단절 일로에 있던 동아시아가 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국수주의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폐쇄적 사유가 열린 사고로 전환되는 변화를 전제한다. 그 사이에 수많은 지식 정보가 오갔고, 그것은 자국 학술 문화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본 발표는 병세의식의 단초와 성장, 그 경로 등을 살펴 이 시기 동아시아 지식인의 지적(知的) 연대 가능성을 타진해보려 한다. 상호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오해와 편견이 씻겨 나가고, 교유가 다른 교유로 이어지는 연쇄 속에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대되어 19세기에 와서는 볼만한 성황을 연출했다.

튼 문예공화국의 비전을 정리하고 있다.

2. 병세의식의 저변과 우정론의 자장(磁場)

18, 19세기 조선지식인의 병세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 시기 부쩍 늘어난 우정에 관한 담론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 오륜 중 맨 끝에 자리했던 붕우의 윤리는 이 시기에 처음 전면으로 부상했다. 연암은 「방경각외전자서(放瓊閣外傳自序)」의 첫 부분에서 붕우유신(朋友有信)이 오륜의 끝자리를 차지한 것은 덜 중해서가 아니라, 앞의 부자와 군신, 부부와 장유(長幼)의 윤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벗이 뒤에 있으면서 이를 통섭하여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라고 하여, 우정의 문제를 전면화하고 나섰다.[2] 나머지 네 가지 윤리가 상하의 수직 관계에 기초한데 반해, 붕우의 윤리만은 수평 관계다.

> 옛날에 벗을 말하는 자는 벗을 두고 혹 '제 2의 나[第二吾]'라 하기도 하고, '주선인(周旋人)'이라고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글자를 만든 자가 '우(羽)'자에서 빌려와 '붕(朋)'자를 만들고, '수(手)'자와 '우(又)'자로 '우(友)'자를 만들었으니,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이 양 손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천고의 옛날을 벗삼는다"고 한다. 답답하구나, 이 말이여! 천고의 사람은 이미 화하여 흩날리는 티끌이나 서늘한 바람이 되었는데, 장차 누가 나를 위해 제 2의 나가 되며, 누가 나를 위해 주선한단 말인가?[3]

벗을 제 2의 나요, 주선인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목은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의 내용을 부연한 것이다.[4] 연암은 이밖에도 여러 글에서 우정의 문제에 특히 집중했다. 「마장전」과 「예덕선생전」 같은 작품은 각각 한편의 우정론에 해당한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이전 시기 우정론은 '이문회우(以文會友)'라든가 '상우천고(尙友千古)'란 말처럼 글을 통한 정신의 교감을 우선했다. 그 사람이 고인이건 아니면

---

2) 박지원, 「放瓊閣外傳自序」 "붕우가 오륜의 끝에 놓임은, 성글거나 낮추어 본 것 아니니, 마치 오행 중에 토(土)가 있어서, 네 계절에 왕성함을 부침과 같네. 부자와 군신과 부부와 장유(長幼), 신(信)이 아니면 어찌 하리요. 평소 행동 만약에 이상해지면, 이때 벗이 있어서 바로잡느니. 그래서 맨 나중에 자리 잡고서, 이에 크게 이들을 통섭한다네. 友居倫季, 匪厥疎卑. 如土於行, 寄王四時. 親義別敍,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迺正之. 所以居後, 迺殿統斯."

3) 박지원, 「繪聲園集跋」 "古之言朋友者, 或稱第二吾, 或稱周旋人. 是故造字者, 羽借爲朋, 手又爲友. 言若鳥之兩翼, 而人之有兩手也. 然而說者曰: '尙友千古', 鬱陶哉是言也! 千古之人, 已化爲飄塵冷風, 則其將誰爲吾第二, 誰爲吾周旋耶?"

4) 관련 논의는 박성순, 2005 「우정의 구조와 윤리 : 한중 교우론에 대한 문학적 사유」 『한국문학연구』 제 28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305-309면 참조. 이밖에 이 시기 우정론에 관한 담론은 임형택, 1976 「박연암의 우정론과 윤리의식의 방향」 『한국한문학연구』 제1집, 한국한문학회, 95-118면 ; 박성순, 2001 「우정의 윤리학과 북학파의 문학사상」 『국어국문학』 129집, 국어국문학회, 129-274면 ; 박수밀, 2007 「18세기 友道論의 문학·사회적 의미」 『18세기 지식인의 생각과 글쓰기 전략』, 태학사, 43-66면 등을 참조할 것.

천년 뒤 후인이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설령 당대에 단 한 사람의 지기가 없다 해도, 천고를 벗 삼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 지기(知己)는 더 이상 진공의 시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닌, 살아 숨쉬고 감촉할 수 있으며, 직접 교감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그때 저기'의 가치 지향이 '지금 여기'로 옮겨가는 의식의 전환과 무관치 않다.

박제가는 「밤에 강산의 집에서 자며(夜宿薑山)」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형제지만 혈기를 받진 않았고	兄弟也非氣
부부이나 한방에 살지는 않네.	夫婦而不室
사람이 하루라도 벗이 없다면	人無一日友
두 손을 잃은 것과 다름 없으리.	如手左右失

연암은 「예덕선생전」에서 벗을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匪氣之弟], '한집에 살지 않는 아내'[不室之妻]에 견준 바 있다. 박제가 또한 이 뜻을 받아서 위 시를 지었다. 단 하루라도 벗이 없다면 두 팔을 잃은 것이나 한 가지라고까지 그는 말한다.

이덕무가 『선귤당농소』에서 말한 다음 대목은 이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지기를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잘 보여준다.

> 만약 한 사람의 지기를 얻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10년간 뽕나무를 심고, 1년간 누에를 쳐서 손수 오색실로 물을 들이리라. 열흘에 한 빛깔을 이룬다면, 50일만에 다섯 가지 빛깔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를 따뜻한 봄볕에 쬐어 말린 뒤, 여린 아내를 시켜 백번 단련한 금침을 가지고서 내 친구의 얼굴을 수놓게 하여 귀한 비단으로 장식하고 고옥(古玉)으로 축을 만들어 아마득히 높은 산과 양양히 흘러가는 강물, 그 사이에다 이를 펼쳐 놓고 서로 마주보며 말없이 있다가, 날이 뉘엿해지면 품에 안고서 돌아오리라.[5]

연암은 「마장전」에서 단지 세명리(勢名利)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 버린 우도(友道)를 개탄했다. 좁은 땅 덩어리에서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으로 갈려 싸우고,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나눠 다툰다. 놓인 처지에 따라 생각과 입장도 확연히 달라져서, 벗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신분에 얽매이고 색목에 걸려 참된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6]

---

5) 이덕무, 『선귤당농소』 "若得一知己, 我當十年種桑, 一年飼蠶, 手染五絲, 十日成一色, 五十日成五色. 曬之以陽春之煦, 使弱妻, 持百鍊金針, 繡我知己面, 裝以異錦, 軸以古玉, 高山峨峨, 流水洋洋, 張于其間, 相對無言, 薄暮懷而歸也."

6) 박지원의 「會友錄序」에 나오는 말이다.

연암이 「예덕선생전」에서 똥 푸는 엄행수를 벗으로 삼고, 서얼이나 위항 천류들과 즐겨 어울렸던 것은 신분과 나이와 당파의 장벽을 넘어 참된 우도(友道)를 실현해 보려는 안간힘이었다. 이런 생각은 자꾸만 확장된다. 이덕무의 글 한 단락을 더 읽어 보자.

> 사봉(沙峰)의 꼭대기에 우뚝 서서 서쪽으로 큰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 뒤편은 아마득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데, 용과 악어가 파도를 뿜어 하늘과 맞닿은 곳을 알지 못하겠다. 한 뜨락 가운데다 울타리로 경계를 지어, 울타리 가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을 이웃이라 부른다. 이제 나는 두 사람과 함께 이편 언덕에 서 있고, 중국 등주(登州)와 내주(萊州)의 사람은 저편 언덕에 서 있으니, 서로 바라보아 말을 할 수도 있으되, 하나의 바다가 넘실거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이웃 사람의 얼굴을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며 발로 이르지 못하는 곳이라 해도, 오직 마음이 내달리는 바는 아무리 멀어도 다다르지 못할 곳이 없다. 이편에서는 이미 저편이 있는 줄을 알고, 저편 또한 이편이 있는 줄을 알진대, 바다는 오히려 하나의 울타리일 뿐이니, 보고 또 듣는다고 말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령 무언가를 붙잡고서 흔들흔들 구만리 상공에 올라가 이편 언덕과 저편 언덕을 한눈에 다 본다면 한 집안 사람일 뿐일 터이니, 또한 어찌 일찍이 울타리로 막혀있는 이웃이라 말하겠는가?[7]

황해도 장연 땅 장산곶의 백사장에서 이덕무가 떠올린 생각은 특별하다. 그는 이쪽에서 저쪽 언덕을 바라보면 바닷물이 막혀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 본다면 중국이니 조선이니 하는 울타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사해동포라는 것이다. 그러니 귀로 못 듣고 눈으로 못 보며, 발로 가 볼 수 없더라도 마음으로 가서 만날 수 있어, 조선과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울타리로 막혀 있는 이웃이 아니라는 논리다. 마침내 우정의 논의가 국경을 넘어서는 현장이다.

홍대용은 그 실증으로 다시 만날 수조차 없는 중국 선비와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사귐을 맺었다. 김종후(金鍾厚)는 홍대용이 중국의 벗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엮은 『회우록(會友錄)』을 보고 비린내 나는 더러운 원수 나라의 머리 깎은 거자(擧子)들과 사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홍대용은 자신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들과 만날 뜻이 없다가, 우연히 한 번의 만남을 갖고보니, 그들의 깨끗한 풍도와 민첩한 재주가 장사하는 오랑캐나 어리석은 한족(漢族)에 견줄 바가

---

7) 이덕무, 「西海旅言」 "卓立沙頂, 西望大海, 海背窈然, 不見其涘. 龍鼉噴濤, 襯天無縫. 一庭之中, 限之以籬. 籬頭相望, 互謂之隣. 今余與二生, 立于此岸, 登萊之人, 立于彼岸, 可相望而語然, 一海盈盈, 莫睹莫聆, 隣人之面, 不相知也. 耳之所不聞, 目之所不見, 足之所不到, 惟心之所馳, 無遠不屆. 此旣知有彼岸, 彼又知有此岸, 海猶一籬耳, 謂之睹且聆焉, 可也. 然假令搏扶搖而上九萬里, 此岸彼岸, 一擧目而盡焉, 則一家人耳, 亦何嘗論隔籬之隣哉?"

아니었다고 토로했다.[8] 김종후의 반응과는 달리 연암 그룹들은 홍대용과 중국 선비와의 사귐이야 말로 진정한 우도의 실현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며 열광했다.

이전 시기 상우천고로 대변되던 수직적 사고는 어느새 당대성과 동시대성에 바탕을 둔 수평적 사고로 전환되었다. 문자를 통한 일방적이고 선형적인 사고가 쌍방향 소통을 전제한 교감적 사고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힘은 18세기 도시의 시정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실현의 꿈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학문은 더 이상 삶의 고결한 목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복 재생산하는 공로공론에 그치고 있었다. 세명리(勢名利)를 벗어난 뜻맞는 벗들간의 교유야말로 숨막히는 삶의 유일한 활로였다. 환멸스런 속태를 벗어나 진실에 기초한 참된 우도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암울한 세상을 건너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한편 이러한 의식변화는 상하의 서열이 엄존하고 사우집단의 위계가 공고했던 지방의 향촌사회에서는 전혀 불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서열의식과 위계질서가 강화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3. 병세의식의 전개 양상

이제 당대성과 동시대성에 기반한 병세의식의 구체적 전개를 살펴보겠다. 병세의 연대의식 속에서는 신분과 나이의 차이, 국경의 장애를 문제삼지 않는다. 정신가치를 공유한다는 유대감은 모든 장벽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린다. 그 전개는 내부적으로는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병세의식으로 확장되고, 외부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지식인과의 상호적이고 대등한 교유로 확산되었다. 차례로 살펴본다.

1) 내부의 표정 : 『병세재언록』과 2종 『병세집』

이글의 집필 계기가 되기도 한, '병세(並世)'란 말을 표제에 내세운 세 종류 저작은 병세의식의 방향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병세', 즉 당대성에 바탕한 지식인 집단의 동시대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차례로 살펴본다.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의 『병세재언록(並世才彦錄)』은 동시대성을 확장하여 학술을 넘어 문학과 예술, 기예 등 방기에까지 관심 폭을 넓혔다. 병세재언이란 말

8) 박성순, 앞의 글(2005), 320면 참조.

은 '우리시대의 뛰어난 재주꾼' 쯤 되는 언표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재주꾼을 모두 집대성 해 보겠다는 취지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의 특출한 역량, 전문가적 변별자질의 유무만이 관건이었다. 이를 담보해주는 것은 이른바 벽(癖) 또는 치(痴)로 상징되는 전문가 정신이다.[9] 『병세재언록』의 저자는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상성을 뛰어넘는 그들의 비범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기행(奇行)과 일화를 도처에 배치함으로써 당대성의 표징을 읽어내려 애썼다. 먼저 그 서문을 읽어본다.

> 비록 그 사람이 있어도 책이 없다면 무엇으로 전해지겠는가? 옛날은 말할 것 없고, 지금도 어찌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 인재를 낸다 해도 덧없기가 긴 허공을 지나가는 새와 같다. 그럴진대 다만 연기처럼 사라지고 안개 속에 잠기고 만다. 책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하늘이 사람을 내고 책을 낸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에 늘어 세워 책에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고작 3천리이다. 그런데도 사대부가 당류(黨流)로 나뉘고부터는 내 색목을 벗어나 떨어져 있는 자는 몇 사람이나 쓸만한 글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목이 닿은 것을 기록한 것도 곤륜산의 옥 조각이나 계림의 한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붓을 잡고 문득 멍하니 사방을 바라본다. 유림록(儒林錄)이라 하고 고사록(高士錄)이라 한 것은 자취는 같은데 둘로 갈래지운 듯하니 어째서인가? 당세의 유자들은 바른 옷차림을 높이 우러르매 바라보기만 해도 문득 그 사람인 줄을 안다. 하지만 고사(高士)란 사람들은 천진(天眞)에 내맡기고 세속과 뒤섞여서 옥을 품고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숨어사는 자이다. 이름의 유무로 실상이 또한 달라진 것인가?[10]

선택 기준을 '병세(並世)'에 두어, 나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색목으로 갈려 나뉘고 부터는 저와 같은 부류만 알고 다른 부류는 알 수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는 답답한 현실을 개탄했다. 이 책에서 비록 부지런히 모은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재주꾼들이 누락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망연자실해진다고 했다.

『병세재언록』은 모두 18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9) 정민, 2007『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0) 이규상, 「並世才彦錄引」 "雖有其人, 若無其書, 曷以傳哉. 往昔勿論, 卽今何限! 天之降才, 而冉冉於長空之鳥過, 則直烟消而霧沈, 不有書之傳, 安在天之生人與生書之意也? 人在余降之前, 人有書之多, 在余後者, 余無及. 惟並余之降者, 余可得以書之. 於是乎立列錄之書. 然我邦僅三千里, 而自士大夫黨流之分, 隔居余色目之外者, 不知有幾人之可書. 其從耳目而書之者, 不過崑玉之片, 桂林之枝. 秉筆輒無然四望也. 其曰儒林錄, 其曰高士錄者, 若一轍而二岐, 何也? 時世之儒, 尊瞻正衣, 望之便知其人. 曰高士者, 任天眞, 渾世俗, 懷玉而樗散者也. 名之有無, 實亦殊差乎哉."

유림록(儒林錄)·고사록(高士錄)·문원록(文苑錄)·곤재록(梱材錄)·서가록(書家錄)·화주록(畵廚錄)·과문록(科文錄)·방기록(方伎錄)·우예록(寓裔錄)·역관록(譯官錄)·양수령록(良守令錄)·효우록(孝友錄)·여력록(膂力錄)·풍천록(風泉錄)·영괴록(靈怪錄)·규열록(閨烈錄)·규수록(閨秀錄)

위 서문에서는 유림록과 고사록을 따로 구분한 것을 특별히 거론했다. 근엄한 유자보다 천진(天眞)에 내맡겨 세속에 숨어사는 고사를 더 높이려는 뜻을 보였다. 이름의 유무로 실상이 달라지는 현실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문원록에서는 이름난 문장가를 나열하면서 벌열과 위항천류를 구분 없이 병렬했다. 글이 뛰어나면 신분에 개의치 않았다. 과문(科文)에 뛰어난 사람은 과문록(科文錄)에 따로 묶었다. 서예가, 화가, 기예인도 별도의 항목을 두었다. 특히 우예록(寓裔錄)은 우리나라에 귀화해온 중국, 일본인의 후예를 기록하여, 그의 열린 생각을 잘 보여준다. 역관과 어진 관리, 힘센 장사, 규수 등의 일까지 모아 적었다.

『병세재언록』에 등장하는 개별 인물들은 약간의 선후만 있지 모두 한 시대를 공유했던 인물들이다. 개인 간의 연대감은 직접 표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갈래별로 망라함으로써 당대 인간사를 재현하겠다는 기록 정신은, 중간중간 견문을 내세워 저자가 문맥에 직접 끼어듦으로써 현장성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11] 그의 기록은 임형택의 지적대로 자신의 가계가 속한 노론 쪽 인사들이 많고, 남인계열 인물들은 비교적 소략하다. 서문에서 "붓을 잡고 문득 멍하니 사방을 바라본다"고 한 언급에서도 드러나듯, 자신의 이목이 미치지 못해 당대의 인재 중에 마땅히 다루었어야 할 인물들이 누락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전 시기에도 패설이나 잡기류 저작들이 여항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경우가 있지만, 이처럼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당대성과 인간을 키워드로 하여 한 시기를 관통한 저작은 찾아보기 힘들다.

윤광심(尹光心, 1751-1817)의 『병세집』은 아직 문집이 간행되지 않았던 당대 문인들의 글 중에서 당대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글만 가려 뽑아 앤솔로지화 함으로써, 동시대적 작가의식을 드러내고, 새로운 문학지향을 표방코자 했다. 이 중에는 실제 문집을 남기지 않은 문인도 있고, 뒤에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진도로 귀양 갔다가 『상두지(桑土志)』와 『기다(記茶)』 등의 실학적 저술을 남기기도 했던 이덕리(李德履) 같이 잊혀진 인물의 글도 수록되어 있다. 색목에도 구애됨 없이 노론과 남인의 시문을 광범위하게 실었다. 또한 방외(方外)와 창기(娼妓)의 항목을

11) 이규상의 『병세재언록』은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에서 『18세기 조선인물지』(창작과비평사, 1997)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해제는 임형택 교수의 「이규상과 병세재언록」, 위의 책, 368-378면 참조.

두어, 방외에는 여춘영(呂春英) 가의 노비인 정씨(鄭氏)성을 가진 월계초부(月溪樵夫)의 시를 11수나 소개하는 등, 신분에도 구애되지 않았다. 이전 시기 허균의 『국조시산(國朝詩刪)』이나 남용익의 『기아(箕雅)』와 같은 시선집에도 방외나 창기나 규방의 시를 수록한 예가 있다. 윤광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당대 활동했던 인물로 국한시킨 점이 다르다.

더욱 특기할 점은 '이국(異國)'의 항목을 따로 둔 점이다. 청나라 공광삼(孔廣森)과 왕백유(王白瑜), 일본의 합리(合離)·복상수(福尙修)·목홍공(木弘恭)·원운(源雲)·개환(芥煥)·서원창(西原彰)·향천경기(香川景記)·덕력량필(德力良弼)·강전의생(岡田宜生)·성야정지(星野貞之) 등의 시문을 최초로 소개했다. 청나라 공광삼은 공자의 70대 손으로, 신묘년에 윤광심의 백당숙(伯堂叔) 윤종백(尹宗伯)이 진주부사(陳奏副使)로 북경에 갔을 때 만난 인물이다. 또 일본 문사의 시문은 계미년(1763)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현천(玄川) 원중거(元重擧)에게 준 시와 조선문사를 위해 겸가당(蒹葭堂) 목홍공(木弘恭) 등이 인장을 파주고서 이를 인보로 만든 뒤 기념으로 써준 『동화인보(東華印譜)』의 발문 등을 실었다. 이들은 『병세집』 편찬 당시에 대부분 생존한 인물이었다. 수록 시문 또한 직접 조선 문사와 접촉하여 교유를 나눈 경우에 국한한 것도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병세집』에 수록된 글도 당대 문단의 흐름을 감지하고, 당대 예원의 분위기나 풍속 등을 기록한 작품들을 전진 배치하였다. 심익운(沈翼雲)의 「현재거사묘지(玄齋居士墓志)」는 화가 심사정(沈師正)의 생애를 기린 내용이고, 「사희경(柶戱經)」은 지금도 즐겨하는 민속놀이인 윷놀이의 방법을 자세히 적은 것이다. 박지원(朴趾源)의 여러 글은 통행본 『연암집』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여러 편이다. 「사장애사(士章哀辭)」 같은 글은 문집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부분도 그대로 수록해, 발표 당시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이덕무(李德懋)의 「적언찬(適言讚) 병서(幷序)」도 문집 『청장관전서』에는 누락되고 없다.

윤광심은 『병세집』을 엮기 위해 직접 당대 문단의 원로에서 신진기예에 이르기까지, 사족에서 위항천류 및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했다. 이는 제목에서 강렬하게 암시하였듯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만 취합하여 엄선한다는 취지였고, 이를 통해 당대 문단의 한 경향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의미이다. 개중에는 훗날 자신들의 문집에도 자기검열을 통해 배제된 글들이 꽤 있다. 문집이 남지 않아 이 선집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남긴 경우도 여럿 있다. 특히 선집 끝에 비록 소수이긴 해도 일본과 중국 문사의 글을 포함시킨 것은 그가 동시대성을 유념했을 뿐 국경조차 문제 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병세의식은 유득공의 『병세집』에 이르러 국경을 넘어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수평적 사고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현재 모두 4종의 필사본이 전해지는 『병세집』은 앞서 두 선집이 국내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데 반해, 온전히 해외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12)]

유득공은 『병세집』에 붙인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 시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남(二南) 즉 주남(周南) 소남(召南)과 13국풍(國風)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대저 땅에는 마땅한 바가 있고, 물건은 나오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좋은 옥은 남전(藍田) 것을 치고, 단사(丹砂)는 구루(勾漏) 것을 꼽는다. 인삼은 상당(上黨) 것을 일컫고, 차는 고저(顧渚)에서 나는 것을 말하곤 한다. 이제 다만 시를 말하면서는 중국에서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농어가 먹고 싶은데 송강(松江)에 가지 않고, 금귤을 구하면서 동정(洞庭)에 가지 않는 것과 진배없으니, 괜찮은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요동 벌 하나와 발해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름이야 외국이라지만 운남이나 귀주 같은 여러 성에 견준다면 지극히 서로 가깝다. 다만 강역으로 갈라져 있어 안팎으로 구별하는 것뿐이다. 그럴진대 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아득하기가 천추와 같아 이따금 비루하고 과문하면서도 그럭저럭 자족하는 자가 있다. 이는 일생토록 농어와 귤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3)]

조선은 국경 때문에 외국이지, 거리나 문화로는 국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한 세상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아득히 모른다. 중국은 시의 본고장인데도 형편이 이러하니, 농어를 먹고 싶으면 송강으로 가야하고, 귤맛을 보려면 동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어지는 글에서 유득공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 옛날 최치원과 김이오(金夷吾)는 고운(顧雲), 장교(張喬)와, 이제현(李齊賢)과 이곡(李穀)은 우집(虞集), 조맹부(趙孟頫)와 교유하며 모두 능히 문단에서 함께 겨루고 나란히 내달릴 수 있었다. 서로 주고 받은 작품이 이제껏 사람들의 눈에 환히 빛난다. 이는 천년 백년에 몇 사람일 뿐이다. 명나라에서는 사걸칠자(四傑七子)와 경릉(竟陵) 운간(雲間)의 명성이 천하에 떨쳤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공은 귀를 기울여도 아무 들리는 바가 없었다.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문집이 간행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온 뒤에야 비로소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음을 안다. 이는 마치 도성과 큰 고장에 과실이 농익었는데도, 궁벽한 시골에서는 그저 앉아 시간이 늦도록 기다리는 것과 진배없다. 내가

12) 이 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는 허경진·천금매, 2009 「유득공 『병세집』」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한중인문학회, 273-308면에 실려 있다.

13) 柳得恭, 「병세집서(並世集序)」 "詩從何興乎, 非二南十三國之地之興乎? 夫土有所宜, 物有所自, 美玉云藍田, 丹砂說勾漏, 蔘稱上黨, 茶言顧渚, 今獨言詩而不求諸中國, 是猶思鱸魚而不之松江, 須金橘而不泛洞庭, 未知其可也. 我東之於中國, 隔遼一野, 間渤一海, 名雖外國, 而比之雲貴諸省, 至相近也. 只緣限之以疆場, 別之以內外, 則生併一世, 邈若千秋, 往往有荒陋寡聞, 沾沾自足者, 一生不知鱸橘之味, 豈不大可哀哉."

> 동지 몇 사람과 더불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 크게 탄식하며 답답해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다가 진계숭(陳繼崧)의 『금시협연집(今詩篋衍集)』과 심덕잠(沈德潛)의 『국조시별재(國朝詩別裁)』를 읽어 보니, 더더욱 중국 인문의 성대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홀로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나와 한 때를 살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십수년 이래로 동지 몇 사람이 마자수(馬訾水) 즉 압록강을 건너 요동벌을 지나 연경에서 노닐지 않음이 없었다. 더불어 노닌 사람들은 모두가 이남(二南)과 13국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혹 관각에서 노닐고, 혹 강호를 방랑하니, 그 풍류와 문물은 당세를 덮어 비추기에 충분하였고, 그들이 지은 시는 우렁찬 아송(雅頌)의 남은 소리라 반드시 후세에 전할 것이다. 사걸칠자가 어찌 홀로 오늘날에만 그 사람이 없겠는가?[14]

신라와 고려 때는 우리 문인이 동시대 중국의 문인들과 대등한 교유를 나눠 문명을 천하에 떨쳤다. 명나라 이후로는 이런 교류가 단절되었다. 하지만 진계숭(陳繼崧, 1625-1682)의 『금시협연집(今詩篋衍集)』과 심덕잠(沈德潛, 1673-1769)의 『국조시별재집(國朝詩別裁集)』을 보니 이들은 자신과 동시대 인물의 시를 모았을 뿐 아니라 당대 해외 문인의 시까지도 수록해 싣고 있었다. 유득공은 자신보다 앞서지도 뒤지지도 않고 똑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문인들이 더 궁금했다. 그런 면에서 자신과 자신의 몇 벗들이 중국 연행 길에서 직접 만나 시문을 주고 받았던 이들의 시를 모아 편집함으로써, 진계숭과 심덕잠 이후 중국에서도 정리하지 못한 동시대 시인들의 시집을 묶겠노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과거 고려 이래로 끊어진 한중 문사 교류의 동시대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 문인의 인문 역량을 중국 쪽에 알리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이상 살핀대로 『병세재언록』과 두 종류의 『병세집』은 '병세'의 동시대성을 키워드로 삼아 당대의 각계각층과 외국까지 망라하여 한 시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읽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의식의 뚜렷한 변화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감지되고 있었던 셈이다.

---

14) 柳得恭, 위의 글 "在昔, 崔致遠·金夷吾之於顧雲張喬也, 李仲思·李中父之於虞趙黃揭也, 咸能聯鑣幷驅于詞翰之林, 唱酬篇章至今照爛人目, 此千百載數人爾. 至若有明一代, 四傑七子, 竟陵雲間, 風聲振海內, 而東土諸公側耳而無所聞. 及至數世之後, 刻本東來, 然後始知某時有某人, 是適通都大邑瓜果爛熳, 而僻鄙窮村坐待晩時也. 余與同志數子, 縱談至此, 未嘗不浩歎彌襟. 及讀陳其年篋衍集, 沈歸愚國朝詩別裁, 益覺中土人文之盛, 而獨未知不先不後與我同時者爲何人也. 十數年來, 同志數子, 莫不涉馬訾跨遼野, 而遊乎燕中. 所與遊者, 皆二南十三國之地之人, 或翱翔館閣, 或放浪江湖, 其風流文物, 足以掩映當世, 而其爲詩也, 瀏瀏然雅頌遺聲, 必傳于後, 四傑七子, 何獨於今而無其人乎?"

2) 한중 문사의 천애지기론(天涯知己論)과 모소열풍(慕蘇熱風)

이제 눈길을 바깥으로 돌려본다. 병세의식의 확장은 국경의 장벽을 넘고 동아시아 지식인 집단의 교류와 연대의식으로 이어졌다. 그 배경에는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지식 교류가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서로 상이한 문화 전통 속에서 성장해온 이들이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을 열어 시야의 지평을 확장해가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공간의 제약으로 이들 간의 만남은 많아서 한 두번에 그친다. 하지만 이들은 귀국 후에도 서신을 통한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천애지기의 우정을 일궈 나갔다.

이른바 천애지기론(天涯知己論)은 홍대용(洪大容)에게서 비롯된다. 홍대용은 1765년 겨울에 계부인 서장관 홍억(洪檍)을 따라 북경에 갔다가 항주 출신의 엄성(嚴誠)·육비(陸飛)·반정균(潘庭筠) 등과 만나 필담으로 지기를 맺고 돌아왔다. 육비는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 사람의 글을 읽는다고 옛 사람을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벗으로 숭상하는 뜻만큼은 혹 보이겠지요. 다만 이승에서 흰 머리로 수천 리 밖에 살면서도 각각 가슴 속에 성명이 아무개인 어떤 사람을 지니게 할 수만 있다면 저 육비와 제공은 모두 가버린 고인이 아닌 것입니다."[15] 직접 만나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고인과 같지만, 동시대에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니 아무 메아리 없는 고인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뜻을 천명했다. 앞서 이덕무가 장연 앞바다에서 중국 쪽을 바라보며 한 독백과 동궤의 언급이다.

육비는 또 다른 글에서, "돌아보건대 여태껏 세력을 보고 사귀고 이익을 따져 능력만 많으면 비난과 비웃음도 돌아보지 않고 한 때의 끈끈한 교분을 이루어 성명(聲名)을 따랐습니다. 또한 이따금 천리 길에 편지를 보내 서로 사귐 맺기를 요구하며 한 때의 헛된 얘기를 펼쳤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드넓게 서로 떨어져서 피차간에 구하는 것도 없고, 형세나 이익도 없으며 성명도 찾지 않습니다. 보든 보지 못하든 간에 아울러 한 마음이 되니 잠깐의 기쁨과 슬픔은 말할만한 것이 못됩니다."[16]라고 했다. 이들은 세명리(勢名利)의 추구를 떠나, 순수한 우정의 힘으로 국경을 넘어 하나 된 마음을 서로 공유했던 것이다.

---

15)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 63 「천애지기서」 "讀古人書, 古人豈可見. 而尙友之志, 則如或見之. 第使此生, 白首數千里外, 各各胸中有某名某姓某人, 則飛與諸公, 皆未往之古人也."

16)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 63 「천애지기서」 "顧從來勢交利合, 多能不顧非笑, 成一時之膠漆, 而馳逐聲名, 亦往往千里投贈, 互相要結, 張一時之虛談. 今我輩以曠然兩隔, 彼此無求, 無勢無利, 不聲不名, 或見或不見, 幷爲一腸. 乍喜乍悲, 不可言說."

연암은 「회우록서(會友錄序)」에서 중국의 오(吳) 땅과 우리나라는 거리가 수만리나 떨어져 있어 홍대용이 이들 세 사람과 다시 만날 일은 없으리라고 하면서, 제 나라 사람과는 한 마을에 살면서도 알고 지내지 않고, 같은 종족이라도 사귀려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말도 다르고 복장도 다른 속인을 마음 맞는 벗으로 받아들인 이유를 묻는다. 홍대용은 국내에 사귈만한 벗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지에 제한 받고 습속에 구애되어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다. 요컨대 진정한 우정의 조건은 신분의 차이나 번거로운 예의에 있지 않고, 진정을 드러내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한 것이다. 서로 속내 없이 진정을 나눌 수만 있다면 국경도 나이도 신분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홍대용이 중국 문사와 나눈 우정은 연암 그룹을 비롯해서 당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1780년 여름, 박지원이 북경 유리창에 갔다가 어느 서점의 2층 다락 난간에 기대서서 길게 한숨을 쉬고는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여한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홀로 유리창에 서 있고 보니 복장이나 갓은 천하가 알 바 없을 것이요, 얼굴 생김새는 세상이 처음 보았을 것이며, 반남 박가는 누구 하나 들은 바 없을 터로, 나는 이참에 성인도 되고 부처도 되고, 철인 현인도 되어 미친 행세는 기자(箕子)나 접여(接輿)에 다름이 없다고 하자. 누구와 더불어 이 아기자기한 취미를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되뇌고 있다. 이 장면은 홍대용의 앞선 교유를 염두에 두어 선망 끝에 나온 발언이다.[17]

수많은 연행록 속에 기재된 중국 사인과의 필담 기록들이나, 한 번의 만남이 다시 그 사우(師友)와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천애지기 교유의 확산은 확실히 이전 시기와는 구분된다. 홍대용에게서 물꼬를 튼 한중 지식인 교류는 이후 연암 그룹를 거쳐, 박제가의 제자인 추사 김정희로까지 이어졌다.

18세기가 천애지기론의 확산을 통해 병세의식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면, 19세기에 이르러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추사와 자하 등이 옹방강과의 만남을 계기로 확산되는 소동파 열풍을 꼽을 수 있다.[18] 호들갑스럽게 여겨질 정도의 소동파 열풍은 본고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조의 학예(學藝)와 비견되는 조선 문화의 고답적 분위기를 연출하여 그들과 나란히 서고자 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자의식과 맞물려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고 오히려 외부와의 동

17) 박지원, 『열하일기』, 「관내정사」편 8월 4일자 기사.

18) 이 시기 모소(慕蘇) 열풍에 대해서는 최완수, 1995 「추사묵연기(秋史墨緣記)」 『간송문화』 4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49-79면에 자세하고, 이밖에 후지츠카 치카시(윤철규 외 역), 2009 『추사 김정희 연구 : 淸朝文化 東傳의 연구』, 과천문화원 ; 신지원, 2009 「당호를 통해서 본 19세기초 소동파 관련 서화 소장문화와 대청문화 교류」 『한국문화』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5-96면에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질적 유대감을 표현코자 했다. 출발은 소동파를 공경하여 자신의 서재를 소재(蘇齋) 또는 보소재(寶蘇齋)로 이름 붙였던 옹방강의 영향에서 출발했다. 이후 조선의 김정희·신위·이조묵 등이 이를 추종함으로써 시작된 모소(慕蘇) 열풍은 소동파의 생일인 12월 19일에 소동파의 초상화를 벽에 걸고, 관련 시문을 늘어 놓아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는 이른바 동파제(東坡祭)의 일대 유행을 낳았다. 또 이들은 임술년이 아니래도 7월 16일이면 배를 띄워 적벽부의 흥취를 잇기도 했다. 청조 인사들과의 빈번한 시문창화와 서신 왕래를 통해 청조 문화를 적극 수입하는 한편, 소동파 존숭을 매개로 그들과 자신을 등치시키려는 '병세' 의식의 일단이 드러난다. 이는 시학(詩學)에서 때아닌 '유소입두(由蘇入杜)'의 학시 경향을 낳았고,[19] 이밖에도 문화 전반에 걸쳐 소동파 풍의 일대 유행을 만들어냈다.

일본에서도 명치(明治) 대정(大正)시대에 '동파미(東坡迷)' 즉 소동파에 매료된 장미우산(長尾雨山, 1864-1942)과 부강철재(富岡鐵齋, 1836-1924) 등에 의해 주도된 문인학자 집단의 소동파 생일날의 수소회(壽蘇會)와 임술년 7월 16일의 적벽회(赤壁會) 같은 비슷한 현상이 조선보다 뒤늦게 목도된다. 이렇듯 한중일 3국에서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소동파 열풍의 문화심리적 이해는 보다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겠기에 본고에서는 할애한다.[20]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이 시기 한중 지식인의 교류가 어느 일방에 의한 종속적 양상을 띠지 않고, 상호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리 쪽이 더 우위에 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홍대용에 대한 엄성과 육비 등의 태도가 그렇고, 옹방강 제자 그룹이 추사에게 보인 한결같은 추숭의 태도도 그렇다. 말하자면 모화적(慕華的) 추종 관계가 아니라 교류의 주도권을 오히려 이편에서 쥐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고비(古碑) 탁본이 저편으로 건너가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같은 저술로 간행되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구해온 일본 고비의 탁본이 조선을 거쳐 다시 중국으로 전파되는 경로에서도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 집단 속에 상대의 문화 역량을 대등하게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21] 이같은 흐름이 좀더 확산되어 18세기 유럽의 '문예공화국'처럼 지식인의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형성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점은 퍽 아쉽다.

---

19) 남영진, 2009 「19세기 시학상의 由陸入杜와 由蘇入杜論」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393-427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20) 일본의 소동파 열풍에 대해서는 池澤滋子, 2006 『日本的 赤壁會和壽蘇會』, 상해인민출판사에 상세하다. 필자 또한 2010년 대만예술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전각학술연토회에서 「19세지 조선지식인의 慕蘇熱과 寶蘇堂引存」이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21) 신로사, 2009 「일본 多胡碑의 조선 전파에 관한 연구의 보론」 『문헌과해석』 통권 46호, 문헌과해석사, 67-83면 참조.

3) 한일 문사의 시회아집(詩會雅集)과 지음지교(知音之交)

18세기 후반 들어 한일 문사간의 교유에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전 시기 통신사행에 참여했던 조선 문사들이 일본을 얕잡아 보는 우월적 태도를 견지하고,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행동을 반복했던 데 반해, 계미년(1763) 사행에서는 전에 볼 수 없던 변화가 감지된다.

이전 시기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 문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폄하나 백안시였고, 논쟁도 금강산과 후지산 중 어느 산이 더 훌륭한가 하는 문제로 상호간에 티격태격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22] 학술도 주자학 외의 것은 입에 올리려고 조차 하지 않는 조선 측의 경직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유한만 해도 『해유록』에서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경제 수준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그들의 학술과 시문창작 역량에 대해서는 폄하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의 대외 개방 이후 매번 눈에 띄게 달라진 일본 문사들의 저작 수준은 이전까지 그들을 얕잡아만 보던 조선 문사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18세기 중반 중국의 『삼재도회』의 내용에 일본과 서양의 항목을 크게 보완한 거질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繪)』같은 저작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자 더 큰 반향이 일어났다.[23] 경학에 대한 깊이 있는 저술들도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야만적인 섬나라 오랑캐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직접 접해본 중국의 머리 깎은 거자(擧子)들이 비루하고 더러운 오랑캐가 아닌 것과 같았다. 그들은 개방적인 학문 태도와 독서 범위, 사유의 깊이로 조선 지식인들을 압도해왔다. 이반룡 왕세정 같은 명대 전후칠자의 문학 수준과 취향에 대한 토론도 이전과는 사뭇 양태가 달라졌다. 전폭적이지는 않았어도 이전까지 치지도외(置之度外) 하던 분위기가 한 순간에 부분적 동조로 바뀌었고, 이러한 교감은 곧바로 지기의 연대감으로 치달았다.[24] 당시 일본은 나가사키 항구의 개방 이후 당관(唐館)을 통해 중국 강남의 출판물들이 물밀 듯이 밀려들고 있었고, 화란(和蘭)을 통해 서양서적과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었다.

계미 사행 당시 남옥(南玉)이 나파사증(那波師曾)이나 목홍공(木弘恭) 등과 나눈

22) 이혜순, 1996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이책 260-280면에 「18세기 한일문사의 금강산 : 부사산의 우열 논쟁과 그 의미」란 기술이 있다.

23) 일본의 『화한삼재도회』가 조선의 백과전서파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안대회, 2010 「18, 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파와 화한삼재도회」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24) 정민, 2003 「東槎餘談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 32집, 한국한문학회와 이를 발전시켜 재론한 2011 「이언진과 일본문사의 왕세정 관련 필담」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4~43면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다.

교유의 장면은 한일 지식인의 교류가 홍대용의 경우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한 단초를 보여준다. 남옥은 사행 기간 중에 무려 500여명의 일본인과 시문을 창수하거나 필담을 주고 받았다. 그 가운데 나파사증에 대해서는 일본의 으뜸가는 문장이요, 제일 가는 변론이라 칭찬하면서 일본 문사 중에 오로지 그 한 사람만이 철중쟁쟁(鐵中錚錚)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이 두 사람은 일본 체류 기간 중에 무려 151수의 시와 10편의 척독을 주고 받았다. 나파사증이 엮은 『동유편(東遊篇)』이 바로 그것이다.[25] 당시 나파사증은 남옥 등이 일본문화를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이전 통신사행과 일본 문사간의 필담 기록을 빌려주기도 하고, 희귀한 책을 구해주기도 했다.

『동유편』에 수록된 나파사증의 편지는 남옥을 향한 깊은 지기(知己)의 정이 묻어난다. 이들은 당시 발생한 최천종 살해사건으로 일본 문사와의 창화가 일체 금지된 상황에서도 어렵게 소식을 주고 받으며 서로 대면치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출발 직전 겨우 잠깐 만나 작별하는 장면을 남옥은 이렇게 적고 있다.

> 여섯 사람이 혹은 작은 붓으로, 혹은 채묵(彩墨)으로 전별하고 눈물을 닦아내며 작별하였다. 강둑에 이르러 노당(魯堂: 나파사증의 호)과 그 동생 오전원계(奧田元繼)를 보니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므로, 또 수레에서 내려 잠시 이야기했다. 금왜(禁倭)가 성을 내며 두 사람을 책망하자 두 사람이 크게 놀라 금루선(金縷船)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아까의 여섯 사람과 함께 모래 둑에 한참을 서서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보고 있다가 배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야 그만 두었다. 비록 언어로써 통할 수 없었으나 수천리를 동행하고 4,5개월을 창수하였으니 정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26]

이를 곁에서 지켜 본 원중거가 역시 나파사증에게 보낸 편지도 남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이미 단순히 호종(護從)하는 문인이 아닌 학문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기(知己)의 동류의식을 지닌 관계로 발전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홍대용이 중국 문사들과의 창수시문과 편지를 묶어 책으로 엮고, 중국인 엄성이 자신의 문집에 홍대용의 초상화를 남기면서까지 서로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주고받은 시문을 책으로 엮고 발문을 써서 한 때의 성사(盛事)를 이루었다.

이언진은 유유한(劉維翰)과 이반룡 왕세정에 대한 공감대를 매개로 교분을 맺었

25) 남옥과 나파사증 간의 교유는 김성진, 2005 「계미사행시의 南玉과 那波師曾」『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111-137면 참조.
26) 남옥, 『日觀記』 5월 6일조. 김성진, 앞의 논문, 120면 재인용.

고, 남옥과 나파사증 또한 육유(陸游)와 백거이(白居易)에 대한 동일한 기호를 통해 급격히 가까워졌다. 이들은 육왕학(陸王學)과 정주학(程朱學)의 견해 차이를 두고도 적극적인 토론을 주고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계미 사행 전체의 분위기가 일본에 대해 이렇듯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언진과 남옥처럼 자국 문단의 핵심에서 빗겨 서 있던 이들이 일본 문사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음(知音)의 사귐을 나눠 병세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 한일 문사 교류에서 중요한 인물은 단연 겸가당(蒹葭堂) 당호를 쓰는 목홍공(木弘恭)이란 인물을 꼽는다. 그는 대판(大阪)의 큰 상인으로 낭화강(浪華江) 가에 살면서 날마다 손님을 청해 시와 술로 즐겼고, 1만권이 넘는 장서를 비치해 두었다. 계미 사행 당시 성대중(成大中)이 그와 만나 아집도(雅集圖)를 청하자, 비단에 직접 그림을 그려 두루마리로 만들고, 그 끝에 여러 사람이 시 한 수씩을 써서 주었다. 승려 축상(竺常)이 서문을 썼다.

성대중이 귀국한 후 이 일은 사대부들 사이에 단연 화제가 되었다. 한 해 뒤 연행길을 나서 중국 문사와 교유를 맺었던 홍대용이 이들의 시문집을 엮은 책의 앞에 「일동조아발(日東藻雅跋)」이란 발문을 지었다. 이덕무는 『청비록(淸脾錄)』 앞부분에 「겸가당(蒹葭堂)」이란 항목을 두어 관련 기록을 모두 수습해 두었다. 축상은 그 서문에서 "겸가당의 아집(雅集)은 문(文)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각각 뜻이 다르고 도(道)도 같지 않은데도 서로 즐기며 우유자적(優遊自適)한 것은 어찌 문이 같은 때문만이겠는가! 다른 것은 서로 어그러지기 쉬우나 세숙이 화(和)로써 조화시키고, 같은 것은 뇌동(雷同)하기 쉬우나 세숙이 예(禮)로써 정제(整齊)하니, 이것이 겸가당에서 아집하게 된 이유이다."[27]라고 하여, 생각도 다르고 도(道)도 같지 않지만 문(文)이 같기에 차이를 넘어 함께 교유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아집도를 조선에 가져가서 만리 밖에 있는 자신들을 보듯 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로써 자신들 또한 나라 안에 머물던 교유가 사해의 선비로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덕무는 『청비록』 뿐 아니라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에서도 「겸가아집도」의 시문 전체를 수록하여 이 때의 성회(盛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글 끝에는 당시 함께 사행에 참여했던 원중거가 말한 다음 언급도 실려 있다.

27) 이덕무, 「청비록」 권 1(국역 『청장관전서』 제7책, 솔출판사, 1997), 27면 참조.

> 일본에는 총명하고 영수(英秀)한 사람들이 많아 진정을 토로(吐露)하고 심금(心襟)을 명백(明白)히 하며 문필(文筆)도 모두 귀히 여길 만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여겨 무시하고 언뜻 보고 나무라고 헐뜯기를 좋아한다.[28]

겸가당은 이들이 귀국한 2년 뒤인 1766년 10월에 초량 왜관(倭館)을 통해 남옥 등에게 따로 시문을 지어 동래 차역(差役) 최학령(崔鶴齡)을 거쳐 한양으로 전달하기도 했다.[29] 지속적인 왕래와 교유를 청한 것이다. 이들의 시문은 앞 절에서 살핀 대로 윤광심의 『병세집』에 수록되었을 만큼 당시에 광범위하게 읽혔다.

간략히 살핀대로 나파사증과 겸가당 등이 조선 문사들과 나눈 교감은 대단히 흥미롭다. 나파사증이 조선의 문사를 찾아와 주고받는 대화나 애틋해하는 마음은 마치 중국의 엄성 등이 홍대용에게 보여준 태도와 방불하다. 사행시 겸가당이 준 「겸가아집도」와 2년 뒤에 사적으로 보내온 겸가당과 그 문인들의 시문은 조선의 조야에 단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이 조선 문사와 당당히 시문으로 맞겨룰 수 있다는 사실에 조선 지식인들은 놀랐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다음 세대인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는 그들의 경학에 관한 최신 저술을 구해 읽고, 그 이론을 과감히 인용 소개하여 경전 탐구에서도 그들의 수준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입증했다.

홍대용의 『회우록』과 성대중의 「겸가아집도」, 그리고 남옥의 『일관기(日觀記)』 등, 당시 조선 지식인이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과 만나 나눈 사적 교유의 기록들은 이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국경을 넘어선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우정,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포용력, 개방적 시선과 국제적 안목 등에 큰 자극을 주었다. 차이의 의미에 대해 눈 뜬 것이야 말로 가장 큰 수확의 하나일 것이다.

4. 맺음말

이상 18,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을 국내와 한중, 한일 세 방향으로 나누어 거칠게 살펴보았다. 홍대용·박지원·이덕무·박제가·성대중·원중거·남옥·이언진 등은 약간의 선후는 있어도 거의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문인들이다. 주류 집단은 아니었으나 당대 문단은 이들의 수중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8) 각주 27과 같은 곳.
29) 남옥, 『日觀記』 冬(김보경 옮김, 2006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537면 참조.

그 영향력이 컸다. 그런 그들이 중국 문사와 만나 천애지기의 교유를 맺고, 일본에 가서는 아집도를 받아와 그곳 문사들과 지음지교(知音之交)를 나누고 왔다. 성대중이 일본에서 구해 돌아온 일본 고비(古碑)의 탁본은 같은 그룹의 인물들에 의해 다시 중국으로 건네졌다. 중국과 일본에 가지 않았던 인물들도 이러한 교유에 동참하여 생면부지의 사람들끼리 시문을 주고받고, 책에 서문을 써주는 등 교유 폭이 확장되면서 여러 흥미로운 현상들이 풍발하였다. 이 시기 제가의 문집에서 흔히 발견되는 수십편의 「회인시(懷人詩)」연작들도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인데, 그 변화의 중심에 병세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가설이다. 이에 이르러 동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 사적인 네트워크가 맺어지고, 지켜보는 선망의 눈길과 함께 확산되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틀을 바꿔 나갔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문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문예공화국의 한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이들이 꿈꾼 천애지기의 우정과 병세의식에 입각한 지식 교류는 19세기에 이르러 중국 쪽은 더욱 활성화 되었다. 추사 김정희와 옹방강의 교유를 통한 소동파 열풍이 그것이다. 한편 일본 쪽은 통신사행의 중단으로 아쉽게도 단절되고 말았다.

이들의 우정은 신분을 넘고 국경을 넘었다. 뜻을 나눌 수만 있다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벗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역에서 우연히 만난 만남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다. 북벌(北伐)의 강고한 이데올로기가 북학(北學)의 힘찬 몸짓으로 바뀌고, 천한 섬 오랑캐는 더불어 상대할만한 지식 교유의 파트너가 되었다. 지식인들의 의식에도 큰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 그 의미를 더 깊이 음미하려면 지식 교류의 개별 양상에 대한 더 꼼꼼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병세의식, 병세재언록, 병세집, 우정론, 문예공화국, 소동파 열풍, 연대의식, 동아시아

투고일(2011. 5. 4), **심사시작일**(2011. 5. 4), **심사완료일**(2011. 5. 31)

참고문헌

高橋博巳, 2009『東アジアの文藝共和國 : 通信使·北學派·蒹葭堂』(일본 : 新典社新書 26).

김성진, 2005「계미사행시의 南玉과 那波師曾」『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111-137면.

남영진, 2009「19세기 시학상의 由陸入杜와 由蘇入杜論」『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393-427면.

남옥(김보경 옮김), 2006『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박성순, 2005「우정의 구조와 윤리 : 한중 교우론에 대한 문학적 사유」『한국문학연구』 제 28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305-309면.

박성순, 2001「우정의 윤리학과 북학파의 문학사상」『국어국문학』 129집, 국어국문학회, 129-274면.

박수밀, 2007「18세기 友道論의 문학·사회적 의미」『18세기 지식인의 생각과 글쓰기 전략』, 태학사, 43-66면.

신로사, 2009「일본 多胡碑의 조선 전파에 관한 연구의 보론」『문헌과해석』 통권 46호, 문헌과해석사, 67-83면.

신지원, 2009「당호를 통해서 본 19세기초 소동파 관련 서화 소장문화와 대청문화 교류」『한국문화』 4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5-96면.

안대회, 2009「18, 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파와 화한삼재도회」, 18世紀科技研 국제연구집회(일본 동경대학 발표문).

이규상, 1997『18세기 조선인물지』, 창작과비평사.

이덕무, 1997『국역 청장관전서』, 솔출판사.

이혜순, 1996『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임형택, 1976「박연암의 우정론과 윤리의식의 방향」『한국한문학연구』 제1집, 한국한문학회, 95-118면.

정 민, 2003「東槎餘談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한국한문학연구』 제32집, 한국한문학회, 87-123면.

_____, 2011「이언진과 일본문사의 왕세정 관련필담」『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7~43면.

_____, 2010「19世紀朝鮮知識份子的慕蘇熱潮和寶蘇堂印存」『方寸天地: 東亞金石篆刻藝術國際學術會議論文集』, 國立臺灣藝術大學人文學院.

_____, 2007『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池澤滋子, 2006『日本的 赤壁會和壽蘇會』, 상해인민출판사.

최완수, 1995「추사묵연기(秋史墨緣記)」『간송문화』 4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49-79면.

후지츠카 치카시, 2009『추사 김정희 연구 : 淸朝文化 東傳의 연구』(윤철규 외 역), 과천문화원.

<Abstract>

A Study on *Byeongse*(幷世, Contemporary) Consciousness of Joseon intellectuals in eighteenth century

Jung, Min *

This paper investigated exchanges of intellectuals in East Asia from 18C to 19C and the rising types on *Byeongse*(幷世, contemporary) consciousness of *Joseon* intellectuals. *Byeongse* consciousness meaned the sense of solidarity living life together with each other. Thought centered on space based upon *Sinocentrism* of previous era changed to thought centered on time valued upon nowness and contemporariness. This indicated that horizontal thought was made possible among contemporary intellectuals beyond boundary of status and nations.

We could see *Byeongse* consciousness of intellectuals in this era from the word '*Byeongse*(contemporary)' recorded repetitively in *Byeongsejaeseonrock* written by *Lee Gyusang, Byeongsejib* written by *Yoon Gwangsim, Byeongsejib* written by *You Deukgong* and etc. They were working collecting biographical writing and poetry of writers, scholars and artists living with themselves in contemporariness. They had dreamed structure of community shared only contemporariness leaping status and transcending national boundary. This expanding of horizontal thought couldn't be accept in the very previous era.

Friendship discourse and changed awareness and countermeasures on others broadened in a comtemporary were buried in the base of the changing of consciousness. This changes were based upon that East Asia located in road of severance entered into road of the open and that closed thought of nationalism transferred into open thought. The flow started from 18C and continued to 19C created noticeable prosperity.

Afterward private networks among intellectuals were formed and seeped with responds of surrounding people and then they expanded wide of understandings

* Professor, Hanyang Univ.

and changed frames of thought. Through this, we become to see the possibility of East Asia Republic of Letters carried with Classical Chinese. Interchange knowledge based upon remote closing friend(天涯知己) and *Byeongse* consciousness dreamed by them more activated in China at 19C. That was the fever of *So Dongpa* through interchange between *Chu Sa Kim Jeonghee* and *Ong Banggang*. In the other hand, interchange knowledge was stopped by severance of journey of *Tongsinsa*(the delegation to Japan).

Key words : Byeongse consciousness, *Byeongsejaeseonrock*, friendship discourse, Republic of Letters, the fever of So Dongpa, the sense of solidarity, East Asia